

북한자료 개방은 통일의 밑거름

한용원

한국교원대 교수 · 북한학

정부는 대북정책의 유연한 전향적 전개의 일환으로 지난 7일 그동안 규제돼온 북한 방송·출판물의 활용을 언론·학술부문에서 우선적으로 대폭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안기부는 '특수자료 취급지침'의 개정에 착수했다. 그런데 북한방송·출판의 개방은 '추악한 북한'이나 '미화된 북한'이 아닌 '실제의 북한'을 이해하는 방편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냉전시대의 북한연구는 관련자료가 미공개된 가운데 정책적 연구에 치중하여 정부당국의 통일관과 그 궤를 같이하는 시론, 정보분석류와 반공홍보용, 월남·귀순인사들의 북한 내막 폭로류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연구시각도 북한의 현상을 '북한의 관점'이 아닌 우리의 관점에서 보아온 경향이었다. 그러므로 북한에 관해 단편적 연구는 이루어졌어도 통계적 연구가 결여되었고, 실제 북한보다 '추악한 북한'의 모습이 부각되었으며, 북한의 현상에 대한 설명과 예측이 부정확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우리 사회에 '북한 바로알기 운동'이 전개되자 정부가 1988년 특수자료 취급인가자에 한해 북한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허용했다. 한편 일부 출판사 등에서 주체사상 총서를 출판하여 시판함으로써 북한의 현상을 긍정적 측면은 부각시키면서 부정적 측면은 비판하지 않아 '미화된 북한' 이해를 초래한 부작용도 수반되었다. 더욱이 1990년대 전반 통일 열기가 확산되면서 북한연구가 북한의 이념과 체제의 상관성 및 체제의 특성과 완성을 소홀히 다루고, 심지어 우리가 기대하는 소망까지 결부시켜 현실과 동떨어진 비현실적 분석을 하는 경향까지 대두되기도 했다.

논의야 여하튼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관한 총체적 연구와 내재적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북한 방송·출판물의 개방은 단계적 개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동안 모든 북한자료를 통제해왔던 정부가 스스로 정치·이념자료에 국한하여 통제하려는 획기적 조치를 단행한 것은 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이 분명하므로 환영해 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이념자료도 일률적으로 통제할 것이 아니라 선전·선동자료가 아닌 한 총체적 연구와 내재적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문제는 방송의 개방에 있다. 유럽에서는 1975년 유럽안보협력회의를 결성하면서 동·서 쌍방간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 보장되었고, 따라서 동독 주민의 80%가 서독 TV를 시청하여 주민의 정체성이 서독체제 지향적으로 변모함으로써 독일 통일이 촉진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서도 남·북 쌍방간 방송개방이 이뤄지기를 바랐지만 북한이 개방을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만 이라도 일방적인 개방조치를 취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방송을 개방한다면 북한에 관한 녹화테이프 및 CD자료 등을 선별적으로 방영하는 선별적 개방, 북한방송에 대한 방해전파 송출을 중단하는 일방적 개방, 북한의 개방정책을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쌍방개방의 단계로 전개될 공산이 큰데, 이중 선별적 개방단계에서는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추악한' 북한자료의 방영을 피하고,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실제의' 북한자료를 방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표지 인터뷰 2 조선문화를 이끈 '정신의 힘' 탐구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펴낸 정옥자 교수

특집/여름, 4 세기말을 뛰어넘는 환상문학의 신선힘 — 김성곤
환상문화의 세계로 떠난다 5 리얼리즘 떠나간 자리에 환상소설 밀물

6 다시 읽고 싶은 환상문학의 고전들

김영하/황병하/김소영/김정란/복거일/
박상준/장석주/김태형/김태현

만화 11 책과 오대리 — 박시백

저자 초대 12 『축제의 정신』펴낸 이상일 교수

출판통계 13 경제·경영서로 불황극복 꾀한 상반기 출판

출판학제 14 지방자치 시대, 지역발전을 탐구한다

신간읽기 16 한국문화인류학회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 — 전경수
윌리엄스 편저 『돈의 세계사』

논단 17 "일본문학출판 아닌 일본문학을 얘기했다" — 이문재

세미나 18 제19회 출판경영자 세미나

출판포럼 19 "업계 빅딜로 새 유통센터 설립을" — 김종수

연재 에세이 20 "죽은 자가 산 자의 눈을 연다" — 이광주

나의 초기작과 최근작 21 나만의 그림색을 찾기 위한 기나긴 여정 — 이원복

책갈피 산책 22 김달진의 산문집 『산거일기』를 읽고 — 정민

해외서점 탐방 23 낭만이 흐르는 세느강변의 고서적상 — 최연구

인터넷 출판향해 24 혼존하지 않는 시공 꿈꾸는 사이트들 — 임인철

서평 26 배우성 『조선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 허영환
황경식 『이론과 실천』 — 엄정식

27 보러 『절대적 혼존』 — 민형원

28 한국정치연구회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실패했는가』 — 전상인
이재광 『식민과 제국의 길』 — 하원호

29 김영나 『조형과 시대정신』 — 노성두

이 책 그 사람 30 『한국이 미국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펴낸 오연호씨
『애완동물 기르기』펴낸 윤신근씨

31 『유령 속에 숨어 있는 역사의 비밀』펴낸 박영수씨

32 새책 속으로 / 36 새로 나온 책

다시 보는 사진집 48 『김녕만 『유머가 있는 풍경』